

JSLA 2013

전국연구집회 참가기

:: 남은경_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머리말

지난 2013년 7월 일본전문도서관협의회(Japan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이하 JSLA)에서 매년 개최하는 전국연구집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였다. KSLA는 제1대 임원진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1년 2월에 제2대 임원진의 국제적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전문도서관협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이하 SLA)와 JSLA가 공동으로 개최한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ICoSAL) 2011' 행사에 참여하면서 JSLA와의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KSLA와 JSLA는 첫 교류로 양 협의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하계 학술세미나에 양 협의회를 초청하기로 결정하였고 몇 년 동안의 준비 끝에 처음으로 JSLA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먼저 초청을 받아 참여를 하게 되었다.

본 행사는 '10년 후의 사서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내일 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동경에 위치한 기계진흥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문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현재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할 때 전문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10년 후의 목표를 향해 일상의 업무 중에서 오늘 당장 우리 사서가 할 수 있는 것과 향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JSLA에서 주제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120여명의 JSLA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KSLA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성준 박사가 "한국에서의 전문도서관의 사서 양성과 스킬 업"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2. 행사내용

본 행사는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은 JSLA 2013 전국연구집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장,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이사장, KSLA 회장, SLA 회장의 축하메시지 전달이 있었다.

축하메시지 전달이 끝난 다음 동경대학 교수(原島 博)의 "정보화는 문화를 목표로 한다"를 주제로

초청강연이 이루어졌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은 과학의 정보화, 비즈니스의 정보화, 개인의 정보화를 거쳐 이제 문화의 정보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둘째 날은 분과별로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도서관의 새로운 발상, 전자자료 활용 기술, 도서관의 새로운 기술, 기업의 저작권 이용, 한국과 일본에서의 도서관 사서의 양성과 스킬 업, 현장에서 배우는 현지 연수 등 총 6개 분과로 주제를 나누었으며, 분과별로 발표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의 새로운 발상

본 분과에서는 카오 주식회사와 큐슈경제조사협회 도서관의 일상업무 개선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특히 카오 주식회사 도서관은 신착 도서의 전시, 연구원 희망 도서 조사를 통하여 연구원이 원하는 도서를 선정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도서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서 과거보다 대출자수 및 대출건수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② 전자자료 활용 기술

본 분과에서는 현재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동방대학의학 도서관에서는 의학에 특화된 디스커버리서비스 구상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③ 전문도서관 사서의 양성과 스킬 업

본 분과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전문사서의 양성과 스킬 업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3. KSLA 주요 활동

3.1 KSLA 회장 축하 메시지 전달

본 행사에서는 JSLA 측의 요청으로 행사 첫날 KSLA의 박계숙 회장의 축하 메시지 전달이 있었다. 박계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본과의 첫 교류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고, 물리적인 도서관 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의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이

그림 1 ▶ KSLA 회장 축하 메시지 전달



러한 시기에 사서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도서관 사서들의 소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KSLA와 JSLA의 교류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점차 교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단초가 되고, 이를 통해 양국의 도서관이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3.2 초청자 발표

둘째 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상준 박사가 한국에서의 전문도서관의 사서 양성과 스킬

그림 2 ▶ 초청자 발표



업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한국전문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전문도서관의 사서, 자료, 예산, 이용 등에 대한 현황과 KSLA 및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KMLA)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한국전문도서관의 운영 환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전문도서관의 주요정책, 채용 현황 등을 설명하였다. 발표 주제인 한국전문도서관의 사서양성 및 스킬 업에 대해서는 사서의 자격 요건, 양성교육제도, 양성교육체계, 전문도서관 현장의 스킬향상 요구 의견, 현장 재교육 현황 및 한국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및 업무개발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김상준 박사의 발표에 대해서 JSLA 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3.3 KSLA-JSLA 미팅

이번에 처음으로 초청자 발표를 진행하면서 기준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2014년에는 양 기관에서 상호 초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양 협의회들의 업무협약이 있었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정식 MOU는 JSLA 측의 사정으로 2015년에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발표 자료와 발표 언어

- 발표 자료와 발표 언어는 자국어 또는 영어가 원칙임

- 통역자 선정 및 통역에 대한 지원은 행사 주관 협의회에서 부담

② 발표 자료의 저널 게재

- 발표 자료에 대해 저널 게재를 위하여 원고를 요청하면 자국어 또는 영어로 원고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원고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관 협의회에서 번역자를 선정하여 번역을 하고, 번역된 자료에 대하여 저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③ 통역과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 통역과 번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섭외는 행사 주관 협의회에서 부담함

④ 발표비 및 원고비 지급

- 발표비나 원고비는 행사 주관 협의회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함

⑤ 발표자 및 참가자 지원

- 행사에 참가하는 발표자 포함 2인 2박에 대하여 행사 주관 협의회에서 숙박비를 지원하며, 실비정도의 국내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음

3.4 철도 관련 사서 미팅

2013년 6월초 일본철도총합기술연구소의 사서로부터 7월 행사 참석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서관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일본에서의 행사 첫날 일본철도총합연구소 등 일본에서의 철도 관련 사서에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서관의 현황

과 주요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관심사항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4. 맺음말

현재 사서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전자저널이 보편화된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고, 정보매체 및 이용자들의 요구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내 사서뿐만 아니라 해외 사서들과 서로의 업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첫 교류를 계기로 JSLA와의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양국의 도서관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